

# 조정기능 국책사업, 호남도어야 중앙정부의



이 명 수  
(李明洙)

충청남도 정책실장

21세기를 불과 몇년 앞두고 시작된 민선 자치단체장 체제의 출범은,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지방의 발걸음을 한층 가볍게 하고 있다.

오랜 기다림과 목마름을 한숨에 축이기에 아직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적지 않지만, 이렇게라도 「시작」을 안했다라면 하는 假定 앞에서는 그래도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자치」를 통해 열리는 밝은 내일, 희망찬 미래상을 그려보면서 ‘좀더 잘할 수는 없을까’,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하는 물음을 생각하는 것이 비단 우리 공직자만의 일은 아니리라 싶다.

‘아직 1년’이라는 어휘를 앞세우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제자리를 찾고 있지 못한 부분 중의 하나가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 재정립이라는 문제임을 어렵지 않게 떠올리게 된다.

물론, 지방자치의 출발이 중앙의 求心力보다 지방의 遠心力을 우월한 가치로 보

는데서 비롯된다. 하지만 요즘의 양상은 그와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 百年大計를 위한다는 「국책사업」을 놓고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에 벌어지는 百態를 보면 ‘아직 멀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호남고속철도 노선, 멀티미디어 단지, 월드컵경기장 유치 등을 둘러싸고 지역간에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과 이를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중앙의 모습을 보면,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절로 일어난다.

우선 장차 국가기간교통망의 하나가 될 「호남고속철도 노선」의 경우, 92년부터 전문연구기관에 의해 구체적인 노선안(案)이 제기된 바 있다. 개별 노선안마다 타당성과 실효성이 덧붙여지고 노선통과에 따른 국토와 지역개발의 청사진이 그려지면서, 중앙과 지방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사안으로 계속 등장하였다.

한동안 전문기관의 연구검

토와 현지조사·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쳤고, 언론을 통해 좋은 말들도 쏟아질 만큼 많이 쏟아졌다.

머지않아 결정이 되리라 기대하였지만, 경부고속철도와 관련해서 충북지역에 느닷없이(?) 간이역 개념의 정차역이 추가되어 노선이 달라지는 현실을 보면서, ‘결정권자의 어려움과 고충’을 충분히 이해도 하고 싶었다.

그런데, 93~95년을 거치면서는 결정 자체 보다는 결정을 보다 복잡하게 만드는 듯한 새로운 대안이 제기되었다. 기존 호남선노선의 활용범위와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다.

또한, 고속철도의 경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유라시아대륙까지 연결되는 첨단 미래 교통수단임을 새롭게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수궁이 가고 남았다.

그러나 애당초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의견이 변경을 거듭하는 데는, 의견상

드러난 새로운 기준과 변수만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도 더 좋은 선택, 더 바람직한 결정을 위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중앙을 향하여 목을 길게 빼고 처분(?)만을 눈여겨 볼 수밖에 없었다.

이틈에 관련 시·도간의 경쟁과 논쟁은 더 없이 치열해졌다. 행정기관과 의회는 물론 각종 시민단체까지 동원되었다. 단순히 유치위원회 구성 정도는 비교적 점잖은 편이고, ‘집단지명운동이다’ ‘결의대회다’ 해서 시위성 모임이 잦아졌고 서울을 오르내리는 횡수도 빈번해졌다.

자기지역의 유리한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평소 관심도 없던 타지역의 불리한 점을 끄집어 내서 흠집내기를 하거나, 언론에 대서특필 되도록 하는 정도는 아예 반공개적으로 내놓고 하는 수법이 되고 말았다.

그러한 갈등의場に 앞장 세워지고 있는 일부 전문가들 중에는, 진정한 전문가로

서의 양식이나 양심, 존경스러움이 빛바랜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기도 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논쟁, 저러한 경쟁을 보며, 그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가득 드리워질 뿐이다.

멀티미디어 단지만 해도 그렇다.

최근에 홍수처럼 쏟아지는 말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멀티미디어」라고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아직 명확한 개념조차 전달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뭔지는 잘 모르지만, 정보화 시대의 꽃이고 앞으로 지역개발을 위해 우리지역에 오면 그 효과가 대단하다고 하더라’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경향 각지에서 그 유치를 위해 바빠 뛰고 있다.

기실, 작년에 중앙에서 고속전철 역세권과 관련한 「미래형 신도시 개발」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지역을 적합한 곳으로 보고, 나름대로 의견 조율을 해오고 있었다. 그 주관부서가 다른 부처로 옮겨진 후, 몇 개 시·도가 유

치경합을 벌였고 금년 1월경까지는 멀티미디어의 입지가 결정 되리라는 기대감을 부풀게도 했다.

웬지 결정시간이 점점 미루어졌고,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선거」라는 길목에서 방황하고 있음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와 같은 미묘한 문제를 민감한 시기에 결정하는데 따른 부담까지는 이해가 되었지만, 이젠 결정되려나 하는 바람이 「민간추진위」라는 돌뿌리에 또 채이는 데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런 과정에서 지역별 경쟁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擴戰(?)을 거듭하게 됨은 不問可知의 일이 아닌가 싶다.

몇백억원을 선투자하겠느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느냐…… 세금감면 등의 행·재정 지원 얘기도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가 되고 있다.

월드컵 경기장 유치와 관련한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수년전부터 개최여부가 거론되어 왔고, 사전에

FIFA측의 관련 전문가들이 국내의 유치신청 도시를 이미 內査한 바도 있다. 상황의 달라짐이 있다면 단독 개최 가능성이 공동개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한·일 공동 개최의 구체적인 방식이 아직 충분하게 협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왕의 개최계획과 전문조사 결과에 따라 「장소」만큼은 어느정도 우열과 차별성이 부각되어 왔다.

지금에 와서 새삼 전혀 거론되지 않던 지역에서 기를 쓰고 유치하겠다고 하거나, 「職을 걸고 관철시키겠다」라는 엉뚱한 소신과 의지까지 나오니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한 외침인지 그 방향과 목표부터 분명히 했으면 싶다.

이 모든 노력들이 진정한 애국심과 애향심의 발로라면 차라리 우리가 앞장서 부추기고 싶을 정도다.

어찌보면 소모적이고 맹목적인 수고와 노력이 상당 부분 있음을 발견케 된다.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체면치

레나 '무얼하고 있느냐'는 주민의 질책에 대한 면책용 활동도 적지 않음을 또한 보게 된다.

그러나 이제는 「결론을 내릴 때」라고 판단된다.

그만큼 연구·검토하고 그만큼 고민하며 지역의견을 수렴했다면 더 이상 지체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이다.

만일, 중앙이 지방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당연히 自治時代에 역행하는 처사가 되겠지만, 반대로 지방의 목소리에 끌리어 내려야 할 결정을 제 때에 내려주지 않는다면, 그 또한 自治時代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다.

무엇보다도 긴 안목에서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마련한 대안이라면, 또 나름대로 지역의견을 수렴해 왔다면, 이제는 투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가 百年大計를 위해서,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중앙에서는 무엇이 바람직한 우

리 모두의 선택인지 가닥을 잡아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올바른 선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中央의 결정을 우리는 목말라 한다.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상호간의 조화와 협력, 그리고 진정한 애국심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선택이라면 우리의 내일, 나라의 장래도 밝게 열릴 수 있다.

그와 같은 자세와 노력 속에 자치의 흐름도 더욱 발전적으로 나아갈 것이며, 21세기 우리의 미래는 더 밝고 운택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올 것으로 믿는다. 